

九龍齋 白鳳來의 『論語』圖說 研究*

이아영**

-
1. 서론
 2.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 1) 전도 유형
 - 2) 분절도 유형
 - 3) 장별 요지파악 유형
 - 4) 핵심주제어별 요지파악 유형
 3. 백봉래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 1) 전체요지 파악도설
 - 2) 논리구조 파악 도설
 - 3) 편·장별 분석 도설
 - 4) 핵심어 ‘一貫’ 분석 도설
 4. 백봉래 논어 해설의 특징
 - 1) 이경증경·이경통경
 - 2) ‘吾道一以貫之’의 차서
 - 3) 논맹본말론
 5. 결론
-

■ 국문요약

이 논문은 九龍齋 白鳳來(1717~1799)의 『論語』 도설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백봉래는 18세기 在野의 경학가로서 師承관계와 學脈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관점으로 聖賢이 남긴 微言大義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경학가들은 경전을 圖解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경전이 가진 전체적인 요지와 논리구조를 파악하였으며 각 편·장의 내용을 圖式化하여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핵심 주제어에 관련된 개념을 하나의 도표에 배치하여

* 이 논문은 「구룡재 백봉래의 논어 도설 연구」 이아영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 E-mail: ayoung3431@naver.com

개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백봉래의 『論語通理』는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식면에서는 語錄體 형식을 가진 『논어』를 도설이라는 저술 방법을 통해 일관된 논리와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는 『논어』 圖解를 통해 전체 요지파악과 논리구조파악 각 篇·章별 요지파악과 핵심주제별 요지를 파악하여 논어를 다방면으로 분석하였다.

내용면에서는 朱子學說을 근간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간 것이 특징이다.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以經證經·以經通經의 방식을 통해 여러 경전의 구절과 관련지어 『논어』 해석의 깊이를 더하였으며, 『논어』 전체가 ‘吾道一以貫之’로 관철되어 있음을 14개의 『논어』 도설로 드러냈다. 또 『논어』와 『孟子』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本末 관계를 형성한다는 견해를 펴 『논어』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도설을 통해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은 동아시아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조선시대 경학의 주요한 특징이다. 조선의 경학가들은 논어의 산발적인 어록체 형식에도 불구하고 『논어』를 도표화하였다. 특히 백봉래는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14개의 도설을 저술하였다. 그의 저술은 독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당대의 학자들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경전의 도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가의 경전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 한 시도로써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九龍齋 白鳳來, 四書, 論語圖, 『論語通理』, 論語圖說

1. 서론

圖說은 조선시대 경서해석에 있어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 중 하나로 경서의 요지를 도표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조선시대는 四書三經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리학의 발달로

인해, 경서와 성리서의 요지를 도표화하는 작업이 退溪 李滉과 南冥 曹植 등 대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¹⁾

특히 조선의 학자들은 주자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四書연구에 많은 공력을 들였다. 그 중 『大學』과 『中庸』에 그 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論語』와 『孟子』는 타인과 문답하거나 공·맹의 언행을 기록한 語錄體 형식을 띠며 장별로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서 전체를 아우르는 요지와 논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첫 번째 까닭이다. 두 번째는 『논어』의 경우 한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해 서술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구조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유기적 관련성과 일관된 요지파악에 용이한 도표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가장 많은 『논어』 도설을 저술한 九龍齋 白鳳來(1717~1799)에 관한 연구는 그의 대체적인 경학론을 소개하였으며, 각 경전에 대한 개별 도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四書三經 관련 도설 가운데, 『주역』·『논어』·『맹자』 관련 도설은 다루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다루어진 도설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개괄적이거나 일부분만 다루어졌다.²⁾ 이 때문에 각 경전에 해당하는 여러 도설을 개별적인 도설로 인식한 것에 그쳐 그의 경학론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³⁾

이에 본고에서는 첫째, 『논어』의 다양한 해석방법 중 하나로서 『논어』 관련 도설을 분석하여 『논어』 해석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논어』 도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백봉래의 『논어』 도설을

1) 최석기(2005), 49~50면.

2) 이병찬(2005), 195~217면 참조; 이병찬(2008), 169~190면 참조; 문창호(2008) 참조; 문창호(2017), 69~99면 참조; 조현석(2016) 참조.

3) 이외에 백봉래를 가장 먼저 대중에게 소개된 것으로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한국경학자료집성』을 들 수 있으며, 백봉래의 학문과 저술에 대하여 최석기(1998), 『한국경학가사전』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중심으로 그의 『논어』 해석의 특징과 도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논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1. 전도 유형

鳳村 崔象龍(1789-1849)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학자로 한 당파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학파의 주요 학자들의 설을 인용하여 同異와 是非를 논변함으로써 경서를 해석하고자 하였다.⁴⁾ 그는 '四書가 四經에 근본한다'는 관점 아래 『中庸』-『周易』, 『大學』-『書經』, 『論語』-『禮記』, 『孟子』-『詩經』으로 연관 짓고 「經書八圖」를 그려 각 경서를 하나의 요지로 파악하여 도표화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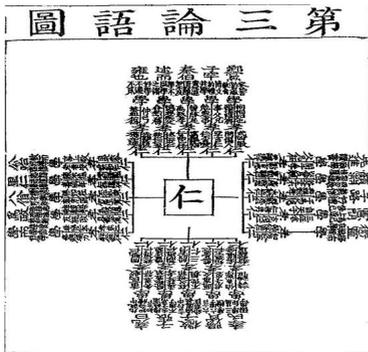


그림 1. 최상룡의 「第三論語圖」

최상룡의 「第三論語圖」(이하 「論語圖」로 지칭하겠다.)는 『논어』 전체의 요지를 '仁'으로 파악하여 중심에 두고, 『논어』 20편을 각각 5편씩 사방에 배치하였다. 또 그는 각 편을 '學'·'孝'·'仁'으로 나누어 각 편에 수록된 내용을 적어놓았다. 예컨대 「學而」의 내용을 살펴보면, 學 위에

4) 이혜인(2014) 참조.

5) 四經과 四書を 서로 연관시켜 『中庸』의 明道는 『周易』의 精微에 근거하고, 『大學』의 入德은 『書經』의 王道에 근본하고 『論語』의 仁은 『禮記』의 禮에 나타나고, 『孟子』의 反經闢邪·遏慾存理는 『詩經』의 性情善惡·感發懲創에서 비롯한다고 밝혀 四書가 四經에 근본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四經四書論에 대하여 최석기(2007), 643면.

‘學習’·‘學固’·‘好學’을 두었고, 孝 위에는 ‘孝悌仁本’·‘事親竭力’을 두고, 仁에는 ‘孝弟仁’·‘鮮仁’·‘親仁’을 두었다.

「학이」 1장6)에서 ‘學’이 제일 먼저 나오고, 2장7)은 ‘孝弟’를 말했는데, ‘孝弟’가 ‘仁’을 행하는 근본이 됨을 말하면서 ‘學’을 『논어』의 본령으로, ‘仁’을 유학 전체를 아우르는 요지로, ‘孝’를 ‘仁’을 행하는 근본이 됨을 밝혔다.⁸⁾

최상룡의 「논어도」는 단 한 장의 도설로 『논어』 20편의 요지를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논어』를 구절 단위로 끊어 ‘學’·‘孝’·‘仁’ 3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하여 배치하였다. 또 기준이 되는 ‘學’·‘孝’·‘仁’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논어』를 분석한 것이다.⁹⁾

『논어』 관련 도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논어도는 16세기 후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旅軒 張顯光(1544-1637)의 「論語上·下圖」이다. 이 도표는 장현광의 『易學圖說』 6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논어』의 요지를 상·하 2장의 도표로 나타내었다.

6) 『論語』 「學而」 1章,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7) 『論語』 「學而」 2章,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8) 윤기륜(2017), 53-60면 참조.

9) 최석기(2007), 617~646면 참조.



그림 2. 장현광 「論語上·下圖」 일부

이 도표는 『논어』의 내용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약술하였는데, 특히 「論語上圖」와 「論語下圖」(이하 각각 「上圖」와 「下圖」로 지칭하겠다.)는 그 분류 기준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먼저 「상도」는 '論學'·'論仁'·'論政'·'論君子' 등 18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그린 것이고 「하도」는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별로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항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論語上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 • 道德容儀言動服食 • 誨人 • 論學 • 論事親 • 論禮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答問政 • 祖述憲章 • 事業行藏去就應接 • 惡似之亂眞 • 答問孝 • 論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答問仁 • 盡仁 • 不許仁 • 論政 • 論君子 • 答問士
「論語下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顏子 • 曾子 • 閔子 • 有子 • 冉伯牛 • 冉仲弓 • 原憲 • 南容 • 子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子游 • 子夏 • 子路 • 子張 • 樊遲 • 宰我 • 子華 • 冉求 • 子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曾點 • 漆彫開 • 公冶長 • 高柴 • 子禽 • 申枨 • 孺悲子 • 互鄉童子

표 1. 장현광의 「論語上·下圖」 항목별 분류

또한 「上圖」의 내용 중 '仁'에 대하여 '論仁'·'答問仁'·'盡仁'·'不許仁'로 분류하고 하위 항목을 정리한 것은 '仁'을 간접적·비유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공자의 표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 이러한 방식은 공자의 추상적이고 다양한 '仁'의 면모를 여러 항목으로 정리함으로써 '仁'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하도」는 『논어』 경문을 26명의 인물에 따라 분류하였다. '顏子'의 하위 내용이 앞서 「상도」에서 이미 표기하였음에도 「顏淵」 1장 경문의 또 다른 부분을 실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장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세부 구절로 나누어 「상·하도」에 각각 실어 놓은 것은 『논어』 경문의 내용을 빠뜨림 없이 분류하고 「논어상·하도」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통해 『논어』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분절도 유형

重齋 金槐(1896-1978)의 「第六論語圖」는 분절도 유형의 도설로 「經學十圖」를 저술하여 四書五經의 내용을 각 경전별로 함축적으로 요약하였다.¹¹⁾

먼저 「學而」의 大旨를 '務本'으로 약하여 단독으로 상단에 배치하였으며, 아래에 「爲政」에서 「子罕」까지 8편을 배열하여 '務本'의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또 도표 중심에 「鄉黨」을 배치하여 『논어』의 가운데에서 공자의 행동거지를 강조하였으며, 그 아래에 「先進」부터 「陽貨」까지 총 7편을 배치하였다.

그 밑으로 「微子」와 「子張」을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해 각각

10) 서근식(2009), 34면.

11) 金槐, 『重齋先生文集』 卷43, 「雜著」-「經學十圖」.

3. 장별 요지파악 유형

조선 전기 敬窩 金佺(1597~1638)는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학문의 요체를 전수받았으며,¹⁶⁾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의 經書類를 집록하고 해제를 비롯한 경서 관련 산문과 성리학 논변을 『海東文獻總錄』에 정리하여 실어 놓았다.¹⁷⁾

김휴는 『논어』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一以貫之’章을 도식화하였다.¹⁸⁾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를 상단 중심에 두고 아래 증거가 답한 ‘夫子之道’를 忠과 恕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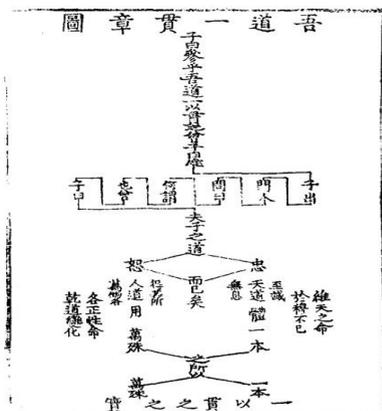


그림 4. 김휴의 『吾道一貫章圖』

김휴는 ‘忠과 恕를 天道와 人道로 구분하여 天道에 해당하는 忠이 중심이 되고, 恕는 忠을 이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體用관계를 형성한다’는¹⁹⁾ 程子の 견해를 따라 忠과 恕를 天道·人道와 體·用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또 주자는 道의 體는 지극히 정성스러워 쉬이 없기[至誠無息] 때

16) 박학래(2009), 234면.

17) 이영호(2019), 272면.

18) 『論語』 「里仁」 15章,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唯.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19) 『論語集註』 「里仁」 15章,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 違道不遠, 是也. 忠恕, 一以貫之, 忠者, 天道, 恕者, 人道. 忠者, 無妄, 恕者, 所以行乎忠也. 忠者, 體, 恕者, 用, 大本達道也. 此與違道不遠異者, 動以天爾.”

문에 만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의 근본이 되고, 道의 用은 만물이 각자의 자리를 얻는 것이라 언급하여 ‘一以貫之’의 뜻을 밝혔다.²⁰⁾ 이에 따라서 김휴는 忠 아래에 ‘天道’·‘無息’·‘至誠’을, 恕 아래에 ‘人道’·‘得其所’·‘萬物’을 배열함으로써 忠과 恕에 대하여 항목을 정리하고, 아래에 一以貫之의 원리임을 나타냈다.

김휴는 자신의 도표에 대해 元代 程復心(1255~1340)의 도설을 참조하여 그린 것이라고 밝혀놓았는데,²¹⁾ 정복심의 도설에서 같은 그림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정복심이 『논어집주』를 바탕으로 각 장별 도표를 그린 것을 참고하였으며 그 도표의 형식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참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4. 핵심주제어별 요지파악형

『논어』의 핵심 주제어들은 『논어』 전반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는 경향이 있어 관련된 여러 장들을 포함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南溪 朴世采(1631~1695)의 「顔子傳授爲仁圖」에 그 특성을 잘 드러난다.

박세채는 ‘博文約禮’는 孔子가 가르친 것과 顏淵이 배운 것이 모두 ‘博文約禮’를 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가장 상단에 배치하였으며,²³⁾ 그 아래에 ‘克己復禮’와 ‘四勿’을 배열하여 공자가 안연에게 일러준 仁에 관한 조

20) 『論語集註』「里仁」15章, “蓋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殊之所以一本也, 萬物各得其所者, 道之用也, 一本之所以萬殊也, 以此觀之, 一以貫之之實可見矣.”(이에 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DB의 번역 참조.)

21) 金佺, 『敬窩集』卷5, 「雜著」, “……而其他條目工夫, 則分類對置, 從傍排列, 大槩略做林隱圖而爲之者也, 茲敢引先生發明林圖之說以證之. 覽者詳之.”

22) 정복심 著: 진병욱 譯(2018) 156면 참조.

23) 『朱子語類』卷24 「論語六」, “朱子曰 聖人之教, 學者之學, 不過博文約禮兩事, 博文, 是道問學之事, 於天下事物之理, 皆欲其知之. 約禮, 是尊德性之事, 於吾心固有之理, 無一息而不存.”

남명 조식의 「博文約禮圖」	박세채의 「顏子傳授爲仁圖」
博文 知 明善 擇善 精 [致知格物] 約禮 行 誠身 固執 一 誠意 力行 [克己復禮]	約禮 服膺不失 博文 擇乎中庸 復禮 知之未嘗復行 克己 不善未嘗不知
視物 聽勿 言勿 動物 自外入 自內出 [克己之目] 不遷怒 不貳過 [克己之功] 三月不違 [未達一間] 用之行 舍之藏 [初無固必]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克己之目] 無伐善 無施勞 [克己之事] 能問不能 多問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幾於無我]
不改其樂 [此博文約禮之真積]	不改其樂 欲罷不能 仰彌高 鑽彌堅 瞻在前 忽在後 如有所立 爲邦 放鄭聲 行夏時 乘殷輅 服周冕 樂則韶舞 遠佞人

표 2. 조식의 「博文約禮圖」와 박세채의 「顏子傳授爲仁圖」

위 표는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조식의 「박문약례도」의 상단의 '博文'과 '約禮'를 각각 '知'와 '行'의 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학문에 있어서 '博文'은 '知'의 일로 기준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래에 '格物致知'를 배치한 것이다. '約禮'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行'의 단계로 실제 일에 접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욕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克己復禮'를 하위 항목으로 배치하였다.²⁸⁾ 반면 박세채는 '博文約禮'와 '克己復禮'를 같은 반열에 올려 동등하게 聖人

의 大法으로 보았으며, ‘박문약례’와 극기복례의 사례를 각각 안연의 사람됨을 언급하는 『中庸』 8장²⁹⁾과 『周易』 「繫辭傳下」 復卦³⁰⁾의 안연의 道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을 들어 설명하였다.

둘째, 중간 부분에서 조식은 ‘극기복례’의 하위항목으로 ‘克己之事’·‘克己之功’·‘幾於無我’·‘初無固必’·‘未達一間’으로 나누었다. 이는 박세채가 분류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차이점을 꼽는다면 조식이 위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극기공부의 항목이 아닌 博文約禮를 통해 나타나는 이상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이고 박세채의 분류는 극기공부를 위주로 조목을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하단의 ‘博文約禮之眞積’으로써 ‘不改其樂’³¹⁾만 배치한 조식과 달리 박세채는 같은 위치에 안연이 도달한 학문의 성과를 ‘不改其樂’과 ‘爲邦’³²⁾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여 보다 안연이 공자로부터 전수받은 ‘인’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백봉래 『논어』 도설의 유형과 특징

1) 전체요지 파악 도설

백봉래의 「論語爲學之根本之圖」는 14개의 『논어』 도설 가운데 서문격으로 그가 파악한 논어의 전체적인 내용과 요지를 담고 있다. 그는 논

28) 최석기(1999), 56~58면 참조.

29) 『中庸章句』 8章, “子曰, 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30) 『周易』 「繫辭傳下」, “顏氏之子其殆庶幾乎, 有不善, 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也.”

31) 『論語』 「雍也」 9章,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不改其樂. 賢哉, 回也.”

32) 『論語』 「衛靈公」 10章, “顏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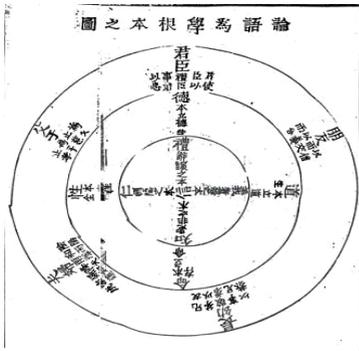


그림 6. 백봉래의 「論語為學根本之圖」

어란 공자의 도덕·광휘를 형용하고 살펴 기록한 것이라 규정하였으며, 33) 공자의 언행이 만물의 이치와 부합하여 天命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학문의 근본으로 인식한 것이다. 34)

그의 도를 살펴보면 3개의 원이 중첩된 형태로 가장 중심원에는 仁·義·禮·智·信을 五行의 원리에 따라 배치하고 信을 제외한 仁·義·禮·智 아래에 각각 惻隱·羞惡·辭讓·是非之本을 배열하였다. 이는 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이 仁·義·禮·智 4本을 근본으로 삼아 발현되는 것임을 드러냈다.

제 2원에는 道·命·德·性을 4德이라 규정하고 이를 4本에 각각 대응시키고 「學而」 2장의 '本立而道生'을 확대한 논리를 적용하였다. 이는 4본과 4덕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4본이 확립되면 4덕에 영향을 미쳐 性全·道生·德生·命存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그 결과로 本然之性으로서의 仁義禮智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냈다. 35)

한편 그는 仁義禮智가 확충된 것을 '信', 道命德性이 겸비된 것을 '理'로 인식하였다. 36) '信'에 대해서는 주희가 "信은 仁義禮智 네 가지 덕을

3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論語何爲而作也? 門弟子形容夫子之道德光輝, 而省記之也."

3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吾夫子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3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惻隱以仁爲本, 羞惡以義爲本, 辭讓以禮爲本, 是非以知爲本, 則本立而性全者仁也, 本立而德生者禮也, 本立而道生者義也, 本立而命存者知也."

3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仁義禮知之擴充者信, 故道命德性之兼備者理也."

성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 仁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義·禮·智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것이다.”³⁷⁾라고 언급한 ‘實’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또 ‘理’를 道命德性 4덕이 겸비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道-『대학』命-『중용』德-『논어』性-『맹자』로 인식하여 각각 則規之學·顯妙之學·務本之學·發越之學으로 四書を 규정하는 백봉래의 견해와 관련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四書を 관통하는 이치(理)로써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⁹⁾

또 제 3원에서는 五倫을 배열하여 『논어』의 요지를 도출하였는데, 五倫이 禮·孝·道·敬·信에 근본한다는 것을 제시하여 『논어』의 요지가 務本임을 밝혔다.⁴⁰⁾ 그는 五倫이 仁·義·禮·智·信에 해당한다는 北溪陳氏의 견해와 관련지어⁴¹⁾ 五倫의 본이 되는 禮·孝·道·敬·信 역시 五常이라는 근본에 힘을 써야만이 행할 수 있는 법도임을 표현하였다.⁴²⁾

백봉래는 『논어』가 학문이 근본이 까닭으로 공자의 도덕·광휘를 담고 있으며 仁·義·禮·智·信과 같은 유가의 기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 五倫과 五常의 상관관계를 들어 「學而」의 大旨인 務本을 학문의 근본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논어』 전체의 본령임

37) 『朱子語類』 卷6, 「性理三」, “曰信是誠實此四者, 實有是仁, 實有是義, 禮智皆然.”

38) 정지연(2016), 13면.

39) 최석기·강현진(2012), 276~281면 참조.

40)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有子曰本立而道生云爾, 則論語全篇, 無非務本之意也. 惻隱羞惡是非者, 爲仁之端, 道命德性者, 爲之本也.”

41) 『性理大全書』 卷37, 「性理九」, “北溪陳氏曰, 父子有親便是仁, 君臣有義便是義, 夫婦有別便是禮, 長幼有序便是智, 朋友有信便是信.”

4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 何以明之? 言君臣則禮爲本也, 言父子則孝爲本也, 言夫婦則道爲本也, 言長幼則敬爲本也, 言朋友則信爲本也. 千言萬語, 莫非務本之義. 一進一退, 亦莫非務本之義. 孔門之多嗜學也, 如非體道而存心, 克己而省察者, 孰能形容於此哉.”

을 드러냈다.

2) 논리구조 파악 도설

백봉래는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를 통해 『논어』 20편의 大旨를 파악하고 이를 총 7권으로 분류하였다. 중심원에는 仁·義·禮·智·信을 배치하여 『논어』 20편이 仁·義·禮·智·信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바깥쪽 원에는 20편이 차례로 등글게 배열하였다.



그림 7. 백봉래의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

백봉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논어』의 「學而」와 「爲政」을 20편의 본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三經의 형성원리를 들어 『논어』를 엮은 孔門의 제자들 역시 공자가 三經을 편찬한 뜻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논어』 역시 「학이」와 「위정」을 본원으로 삼았다고 설명한다.⁴³⁾ 또 「학이」를 智로, 「위정」을 仁으로 인식하여 학문의 쓰임이 「위정」에서 베풀어지고 정치의 근본이 「학이」에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학이」와 「위정」이 앎과 실천의 관계임을 설명하였다.⁴⁴⁾ 즉, 백봉래는

4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二十之篇, 莫不體用於學而爲政之本原, 則其所門人之次篇, 其非吾夫子刪詩序書之體易者耶? 詩之三百篇, 莫非二南. 書之五十篇, 亦莫非二典也. 易之六十(四)卦, 都是乾坤之一樣子, 則語之二十篇, 此實學而爲政之體用也.”

4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門弟子形容, 夫子之道德, 而以學而爲首, 以爲政爲次, 則學而知也, 爲政仁也. 學之用施於爲政, 政之本在於學而, 則吾

「학이」와 「위정」에는 학문의 근본과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지의 大經·大法이 되며, 『논어』 20편의 강령이 됨을 밝혔다.

둘째, 「鄉黨」을 『논어』의 樞要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그는 『논어』를 공자의 도덕·광휘를 형용한 저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20편 가운데 공자의 動靜言行에 대한 저술로만 이루어진 「향당」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또 그는 「향당」이 『논어』 가운데 위치하는 것에 대하여 “夫자의 도덕을 형용하여 上下의 周旋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前後의 禮樂德政이 「향당」에 형용되지 않음이 없고, 上下의 動靜言行이 또한 「향당」에 형용되지 않음이 없다.”⁴⁵⁾라고 밝힘으로써 「향당」을 기점으로 앞뒤의 내용이 모두 「향당」에 나타나 있음을 드러냈다.

셋째, 「요왈」을 堯舜으로부터 周公·孔子에 이르기까지 道傳을 밝힌 장으로 파악하였다. 공자의 기상은 앞선 성인을 이어받아 그 太和元氣가 四時에 행해진다고 밝혀 공자가 요순으로부터 전해오던 道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였는데,⁴⁶⁾ 백봉래의 수제자인 謙窩 沈就濟(1752-1809)가 體用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금 『논어』 한 부분인 「학이」를 첫 편으로 삼고 「향당」을 중간에 두고 「歷叙群聖」(「堯曰」)을 종편으로 삼았다. 「학이」는 마음의 全德을 배워서 밝힌 것이고, 「향당」은 마음의 全德을 편안히 하여 실천한 것이고, 歷叙는 마음의 全德을 전하여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一本이면서

必曰學而爲政爲，二十篇之綱領也。禮樂詩書，莫非知道命德性，亦莫非仁，則其所學政於不爲天地之大經大法耶？”

4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謹述論語七篇, 而以鄉黨居中者, 形容夫子之道德, 以明上下之周旋也. 前後之禮樂德政, 莫非形容於鄉黨. 上下之動靜言行, 亦莫非形容於鄉黨.”

4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堯曰之終篇者, 歷叙羣聖以明道統之傳, 則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 禹湯以是傳之文武, 文武以是傳之周公孔子者此也. 夫子之爲氣象, 卽太和元氣行於四時, 則自堯舜至周公孔子, 抑又非太和元氣行於四時者耶?”

萬殊인 것은 「학이」이고 萬殊이면서 一本인 것은 歷叙(「요왈」)이다. 「향당」 한 편은 一本을 세우고 萬殊를 통섭한다.⁴⁷⁾

위 인용문에 따르면 『논어』 20편은 一本萬殊의 이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一本’은 마음의 全德을 의미한다. 「학이」에서는 全德을 배운 것으로 皐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요왈」은 이 마음의 全德을 전수받은 것으로 『논어』에 산발적으로 나타난 全德을 종합하여 공자의 道로 귀결됨을 나타낸 것이다. 또 「향당」은 중간에서 一本인 마음의 全德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동, 즉 萬殊로 드러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는 『논어』 전체 편에 대하여 요지를 파악하고 중요한 편을 꼽아 논어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였다. 「학이」와 「위정」이 『논어』의 본원이 되어 綱領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과 「향당」을 『논어』의 추요로서 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요왈」에 대해 道傳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자의 언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뜻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3) 편·장별 분석 도설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는 「향당」을 전체를 다룬 도이다. 백봉래는 「향당」을 공자의 언행을 형용하는 편으로서 『논어』의 논리 구조 속에서 樞要로 인식하는 견해에 의거하여 도를 작성하였다.

중심원에 공자의 용모를 뜻하는 容을 중심으로 사방에 ‘禮樂’·‘德政’과 ‘動靜’·‘言行’을 배치하였다. 그는 『향당』에 실린 많은 도리가 공자에

47) 沈戴濟, 『謙窩集』 卷2, 「論語說」, “今夫論語, 一部以學而爲首, 以鄉黨居中, 以歷叙羣聖, 爲篇終. 其學者, 心之全德學, 而明之也. 其鄉黨者, 心之全德安, 而行之也. 其歷叙者, 心之全德傳, 而受之也. 然則 一本而萬殊者, 學而也. 萬殊而一本者, 歷叙也. 鄉黨一篇, 立一本, 統萬殊.”

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향당』에 공자의 禮樂德政과 動靜言行之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⁴⁸⁾ 이는 주자가 “『향당』에 ‘天命之謂性’으로부터 ‘道不可須臾離’까지가 모두 그 속(『향당』)에 들어 있으며, 허다한 도리가 모두 성인의 몸으로부터 나왔으니 오직 성인만이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인들이 자세히 보아 상세히 기록하였다.”⁴⁹⁾라고 한 주석과 관련지는 것으로 보인다.

바깥 원에 「향당」 17절에 대한 요지를 약술하여 둥글게 배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향당」이 17절로 나누어진 것에 대하여 『주역』 「문언」 6節에 ‘大人이란 天地와 그 德을 합하여 日月과 그 밝음이



그림 8. 백봉래의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

합하며 四時와 그 차례가 합하며 鬼神과 그 길흉이 합한다.’⁵⁰⁾ 라고 한 부분을 들어 공자가 만물과 서로 감동하고 공자의 덕이 부합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비유하였다.⁵¹⁾ 이러한 견해는 「향당」 전체 구절마다 공자의 動靜言行之이 만물의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을 반복하여 형용하고 거듭 밝히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

4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前後之禮樂德政, 莫非形容於鄉黨. 上下之動靜言行, 亦莫非形容於鄉黨.”

49) 『朱子語類』卷38, 「論語二十」, “鄉黨一篇, 自天命之謂性, 至道不可須臾離, 皆在裏面, 許多道理, 皆自聖人身上迸出來. 惟聖人, 做得甚分曉. 故門人見之熟, 是以記之詳.”

50) 『周易』卷1, 「文言專」,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51) 『周易正義』卷1, 「乾傳」, “但上節, 明大人與萬物相感, 此論大人之德无所不合, 廣言所合之事”.

5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分爲十七節者, 蓋取諸易文言六節之義也. 節節分解, 章章分析, 而申明節節之義, 再申明章章之義者. 抑又非反覆形容耶? 瞻前顧後, 無非動靜之形容, 左準右規, 亦無非言行之形容也. 既曰與天地同德, 則形容

한편 도표에서 17절에 대하여 주자가 파악한 大旨를 약술하여 실어 놓되, 설에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놓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節	大旨	定義
1	此記孔子在鄉黨宗廟朝廷言貌之不同	節以合禮
2	此記孔子在朝廷事上接下之不同	節以均禮
3	此記孔子爲君擯相之容	容恭
4	此記孔子在朝之容	容敬
5	此記孔子爲君聘於隣國之容	容肅
6	此記孔子衣服之制	色容莊
7	此記孔子謹製之事	誠
8	此記孔子飲食之節	慎
9	·	·
10	此記孔子居鄉之事	敬
11	此記孔子與人交之誠意	忠
12	·	·
13	此記孔子事君之禮	分
14	此記孔子交朋友之義	信
15	此記孔子容貌之變	正色
16	此記孔子乘車之容	謹
17	·	·

표 3. 「鄉黨居中形容夫子之圖」의 대지파악 및 정의

백봉래는 「향당」 2절⁵³⁾에 주자의 주석이 혼고와 상황에 대한 설명에 그친 반면 백봉래는 ‘예를 균평하게 한다(均禮)’는 의미로 보았으며, 또 13절⁵⁴⁾을 아우르는 의미를 각 상황을 구별하는 의미(分)로 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향당」을 『논어』의 추요로 인식하여 각 절에 대한 의미에

者鄉黨。旣曰與日月合明，則模範者亦鄉黨也。四時安敢錯其序，鬼神安敢逃其吉凶耶？”

53) 『論語』「鄉黨」2節, “朝與下大夫言. 侃侃如也 與上大夫言 誾誾如也 君在 踧踖如也 與與如也”

54) 『論語』「鄉黨」13節, “君賜食 必正席先嘗之 君賜腥 必熟而薦之 君賜生 必畜之. 侍食於君 君祭 先飯. 疾君視之 東首 加朝服拖紳. 君命召 不俟駕行矣. 入太廟 每事問”

대하여 깊게 사유한 결과이다.

또 도표에 주자의 내용 해석이 없는 9절·12절·17절에 대해서 9

절55)은 8절56)의 내용을 이어받는다고 하였으며, 12절57) 또한 13절의

구분하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58) 또 17절59)에 대해서는 주자의 闕文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며60) 14절61)의 내용과 뜻 통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기도 하였다.62)



그림 9. 백봉래의 「歎不復夢見周公之圖」

「述而」 5장63)의 내용을 다룬 「歎不復夢見周公之圖」는 백봉래는 주자가 “공자가 젊었을 때 마음으로 周公의 道를 행하고자 하였다.”64)라고 언급한 내용을 전

55) 『論語』 「鄉黨」 9節, “席不正, 不坐.”

56) 『論語』 「鄉黨」 8節, “食不厭精, 膾不厭細, 食饅而餽, 魚餒而肉敗, 不食,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割不正不食, 不得其醬不食, 肉雖多, 不使勝食氣, 唯酒無量, 不及亂, 沽酒市脯, 不食, 不撤薑食, 不多食, 祭於公, 不宿肉, 祭肉, 不出三日, 出三日, 不食之矣. 食不語, 寢不. 雖疏食菜羹, 瓜祭, 必齊如也.”

57) 『論語』 「鄉黨」 12節, “廡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5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至若九節十二節之無節者, 其或承上文, 而然歎, 聯下節, 而然歎.”

59) 『論語』 「鄉黨」 17節, “色斯舉矣, 翔而後集. 曰山梁雌雉, 時哉時哉. 子路共之, 三嗅而作.”

60) 『論語集註』 「鄉黨」 17節, “言鳥見人之顏色不善, 則飛去, 回翔審視而後, 下止, 人之見幾而作, 審擇所處, 亦當如此. 然此上下, 必有闕文矣.”

61) 『論語』 「鄉黨」 14節, “朋友死, 無所歸, 曰於我殯, 朋友之饋, 雖車馬, 非祭肉, 不拜.”

6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色斯一章, 其或節之餘韻耶? 篇下即記十七節, 而分言節者, 不過十四節也.”

63) 『論語』 「述而」 5章,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제로 하여 도를 작성하였다.

중심원에 이 장의 주제어인 ‘夢’을 중심에 두고 ‘影’·‘響’·‘氣’·‘聲’을 배치하였다. 그는 주공과 공자의 시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影之隨形], 메아리가 소리에 응답하는 것[響之應聲], 같은 기운이 서로를 추구하는 것[同氣之相求], 같은 소리가 서로 응답하는 것[同聲之相應]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공자와 주공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공자가 주공을 계승하였음을 밝혔다.⁶⁵⁾

이어서 그는 제 2원에 事業·言行을 배치하여 공자가 장성한 때에 주공의 사업을 조술하고 언행을 따른 것을 나타내었다.⁶⁶⁾ 백봉래는 공자가 주공을 늘 생각하여 寤寐의 사이에도 주공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음을 드러내면서 공자가 젊고 기운이 있을 적에 의지와 생각이 주공의 道를 실천하려 했음을 밝혔다.⁶⁷⁾

제 3원의 상단에는 주공의 사업과 언행을 이어받아 실천한 것들을 나열하였다. 『詩』와 『書』를 刪削하고, 『周易』을 贊述하고 『春秋』를 編修하는 등 모두 前聖의 옛 것을 전술하는 것과 같은 일임을 드러냈다.⁶⁸⁾ 이와 같은 내용을 도표에 ‘述禮尊周’·‘仗義思周’·‘文言宗周’·‘序書尙周’·‘刪詩釋周’ 5가지 항목으로 나타내었다.⁶⁹⁾

64) 『論語集註』 「述而」 5章. “孔子盛時, 志欲行周公之道.”

6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周公之言行, 孔子而後從之, 周公之事業, 孔子而後述之, 則世雖相後, 得志行于中國, 則若影之隨形, 響之應聲也. 地雖相遠, 傳道行于天下, 則如同氣之相求, 同聲之相應也.”

6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吾夫子方其少壯之時, 欲行周公之事, 欲述周公之業, 而言周公之言, 行周公之行, 寤寐之間翼翼乎如周公之在上, 轉側之際, 儼儼乎如周公之甚邇也. 寐之在前, 寤之在後, 則思服釋思之日, 無一日不思, 無一日不夢也.”

67) 『論語集註』 「述而」 5章, “程子曰 孔子盛時, 寤寐常存行周公之道, 及其老也, 則志慮衰而不可以有爲矣.”

68) 『論語集註』 「述而」 1章, “孔子刪詩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皆傳先王之舊, 而未嘗有所作也.”

6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 卷13, 『四書通理-論語』, “…… 思其禮而述之, 思其義而尊

또 제 3원의 하단에는 공자가 더이상 주공과 관련된 꿈을 꾸지 못하게 된 조목을 또한 나열하였다. ‘鳳圖不至’·‘天將喪予’·‘西狩獲麟’·‘匡人所止’·‘在陳絕糧’와 같은 일을 통해 하늘이 세상에 道를 행할 뜻이 없음이 밝혀졌고 공자가 이러한 일을 직접 체험하여 하늘이 세상에 道가 행해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견해를 밝혔다.⁷⁰⁾

4) 핵심어 ‘一貫’ 분석 도설

백봉래는 「夫子道一貫之圖」를 통해 『논어』의 핵심 주제어인 ‘一以貫之’을 분석하였다. 먼저 ‘一貫’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주자의 견해를 따라 ‘一’을 ‘心’으로, ‘貫’을 ‘萬殊’로 전제하였다. 그는 ‘一以貫之’의 핵심을 ‘心’으로 파악하여 도표의 가장 중심에 배치하고 ‘心’ 주변을 時·欽·誠·敬를 각각 배열하였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이 4가지는 요순으로부터 공자까지 전수되어 온 心法임을 밝히며 이는 곧 공자가 ‘吾道’라고 일컫는 공자의 道라는 것을 드러냈다.⁷¹⁾

한편 이 4가지 心法은 각각 『주역』·『서경』·『시경』·『대학』을 통해 전수되었는데 時는 마음을 때에 맞게 쓰도록 하고(用心), 欽은 마음을 보존하게 하고(存心), 誠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一心), 敬은 마음을 곧게 하여(直心)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연의 마음을 보존해야 함을 나

之, 思其理而文言, 思其體而序書, 思其誠而刪詩者, 此正少壯之時, 欲行周公之事也.
70)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一自鳳圖不至之後, 爲匡人所止, 而在陳絕糧, 又哭顏回, 則絕筆獲麟之日, 夫何思周之夢不復入我夢乎, 吾道已矣之夜, 思周之念少弛矣, 其於予何之日, 思周之念漸衰矣, 困窮之夕, 思周之念幾希矣, 天喪之歎, 思周之念如何, 獲麟之辰, 思周之念幾於望斷, 如之何一夢從盛衰, 而夢不夢, 必也一夢隨行止, 而夢不夢也.”
71)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朱夫子曰 一者心也, 貫者萬事也云爾, 則此是當喫緊處也. …… 斯文, 吾道自堯舜始, 則允執厥中者, 堯所以授舜之心法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所以授禹之心法也.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孔子, 則庸學之大義微旨, 無非存此心之妙也.”

타났다.⁷²⁾

또 이렇게 보존된 마음은 제 2원의 天地之性·鬼神之神·日月之明·四時之序 즉 '萬象'에 영향을 주어 '一理'에서 '萬象'이 되는 이치를 밝힌다. 또 行仁·存信의 단서가 되는 孝弟忠信과 辭讓과 是非之心의 단서가 되는 禮義廉恥 즉, 一理인 마음이 萬殊인 孝·弟·忠·信·禮·義·廉·恥에 이르게 됨을 제 3원을 통해 드러내었다.

제 4원에는 『중용』 首章의 一理-萬象,⁷³⁾ 『주역』 一本-萬殊를 배치하여 '一貫'의 오묘함을 드러냈다. 이에 '一'은 '一理' 또는 '一本'으로 堯舜부터 내려온 心法을 뜻하며, '貫'은 '萬象' 또는 '萬殊'로 '孝·弟·忠·信·禮·義·廉·恥'와 같은 다양한 덕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3. 백봉래 논어 해석의 특징

1) 以經證經·以經通經

백봉래는 四書三經 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四書의 근거는 三經이고, 그 중의 『詩經』·『書經』은 『周易』을 體로 삼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四書三經은 『주역』의 이치에 일관되는 유기적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경학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⁷⁴⁾

이에 백봉래는 『논어』를 해석함에 있어 『대학』·『중용』·『주

7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易之復曰 其見天地之心, 則時以存此心也, 書之允執厥中, 則欽以存此心也, 詩之思無邪, 則誠以存此心也, 學之敬厥止, 則敬以存此心. 故心爲一身之主, 應萬事而一串也. 心存則天地之性鬼神之神, 莫不影響矣. 心不存則日月之明四時之序, 亦莫不鑿戾矣. 一理萬象之際, 一乃心以貫之, 一本萬殊之間, 一乃心以串之.”

73) 『中庸章句』1章, “書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末復合爲一理, 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 其味無窮, 皆實學也.”

74) 문창호(2017), 83면.

역』·『서경』·『시경』과 같은 경서류를 다수 인용하는 ‘以經證經’과 ‘以經通經’ 방식을 취하였다.

백봉래는 『논어』 「팔일」 20장⁷⁵⁾의 ‘關雎’를 설명하면서 『주역』의 乾·坤을 들어 설명한다. 먼저, 『시경』의 關雎와 『주역』의 乾坤을 등가로 놓았는데, 이는 「序卦傳」에 “천지가 있게 된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게 된 다음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게 된 다음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게 된 다음에 모든 인간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⁷⁶⁾ 이를 바탕으로 三經을 각각 父子·君臣·夫婦의 기강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곧 三綱의 법칙이 됨을 밝혔다.⁷⁷⁾

또 『주역』이 『시경』·『서경』의 本體가 된다는 그의 견해에 따라,⁷⁸⁾ 『주역』-乾坤, 『서경』-二典, 『시경』-二南이라는 공식에서 ‘二南’ 대신 『시경』-關雎로 대입함으로써 「周南」과 「召南」을 전체를 아우르는 시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關雎’라는 한 편의 시를 『시경』의 體인 二南에 대입함으로써 세상의 이치가 夫婦의 조화 즉 ‘關雎’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백봉래가 關雎의 개념을 삼경의 시작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주역』의 乾·坤卦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봉래는 「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에서 ‘仁’을 ‘渾然之仁’과 ‘生物之仁’,

75) 『論語』 「八佾」 20章,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76) 『周易』 「說卦傳」,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이에 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DB의 번역 참조.)

77)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吁. 詩之關雎, 如易之有乾坤, 則易之乾坤, 父子之綱也. 書之乾坤, 君臣之綱也. 詩之乾坤, 夫婦之綱也.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故有夫婦, 然後有父子, 有父子, 然後有君臣者, 此正三綱也. 吾夫子刪詩序書, 無非體易之乾坤, 則乾坤成列, 易立乎其中, 二典提綱六體, 各得其正, 關雎挈領六義, 咸取其則者, 此亦三經之體要也”

7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4, 「三經通義-詩經」, “體易之謂詩書, 則書之六體, 詩之六義, 無非體易之六節者也.”

‘未然之仁’과 ‘已然之仁’으로 구분하면서 『주역』의 剝卦와 復卦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⁷⁹⁾

그 중 渾然之仁은 天地渾然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生物之仁은 天地生物의 작용을 말한다. 또 已然之仁을 「剝卦」의 ‘碩果’라고 언급하였는데 『주역』 「박괘」에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 [碩果不食]”를 말한 것이다.⁸⁰⁾ 이는 아래의 다섯 개 효가 모두 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한 효만 陽인 것을 ‘碩果’로 비유한 것으로 陽이 곧 없어져 陰이 될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⁸¹⁾

未然之仁은 復卦의 ‘天’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復卦의 “天地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⁸²⁾라고 한 것으로, 앞의 剝卦를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復卦가 되어 다시 양이 아래에서 차오르는 형상을 보여준다. 이는 천지가 사물을 낳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⁸³⁾

이는 渾然한 가운데(體) 生物의 仁(用)을 함육하는 것이고, 未然한 가운데(復) 已然의 仁(剝)을 존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 하나의 理와 하나의 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仁의 속성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仁은 體用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시 剝卦가 변하여 復卦가 된 것처럼 끝과 시작이 맞물려 있음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주역』의 원리가 三經을 비롯한 四書도 관통하고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논어』를 해석하였다. 원래 ‘以經證經’의 해석

7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仁有渾然之仁, 亦有生物之仁, 則渾然之仁, 卽天地渾然之體也. 生物之仁, 卽天地生物之用也. 至若已然之仁, 卽剝之碩果也. 未然之仁, 亦復之天心也. 碩果之生生, 一理不遠而復, 則渾然之中, 含育生物之仁, 未然之中, 存養已然之仁者, 無非一理, 亦無非一仁也.”

80) 『周易』 「剝卦」, “上九, 碩果不食, 君子, 得輿, 小人, 剝廬.”

81) 한국주역대전편찬실(2017), 『한국주역대전』 5권, 739면.

82) 『周易』 「復卦」, “復, 其見天地之心乎.”

83) 한국주역대전편찬실(2017), 『한국주역대전』 6권, 46면.

방식은 주자의 주석과 다른 점이 있을 때에 자신의 경설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⁸⁴⁾ 하지만 백봉래의 ‘以經證經’ 방식은 주자학에 기반을 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형태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백봉래는 『논어』를 해석함에 以經通經의 방식을 취하여 經과 經의 의미를 서로 소통시켰다.⁸⁵⁾ 이는 단편적인 『논어』 서술의 특성을 극복하고 일관된 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임금이 政事를 묻고, 제자들이 政事를 물은 것이 적지는 않으나, 오직 顔子에게 이 4가지 節을 알려준 것은 아마도 哀公이 政事를 물은 것과 같으니 『중용』에서는 九經에 그 항목이 상세히 드러나 있고, 『논어』에는 四節에 그 강령이 차례로 적혀 있다.⁸⁶⁾

위의 인용문은 「衛靈公」 10장⁸⁷⁾을 해석하면서 『中庸』 20장⁸⁸⁾을 연관시켜 풀이한 것이다. 공자가 안연에게 四節을 알려준 것과 哀公에게 九經을 일러 준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여겨 대응시킨 것이다. 공자는 안연을 왕을 보좌할 인재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爲邦’의 절목인 四節을 일러준 것이다.⁸⁹⁾ 또 애공은 魯나라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⁹⁰⁾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조목을 설명한 것으

84) 이영호(1999), 145면.

85) 김채리(2016), 47면.

8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時君之問政, 諸子之問政, 不爲不多, 而惟以告顔子之此四節者, 盖如哀公之問政, 則庸之九經詳言其目也, 語之四節歷言其綱也.”

87) 『論語』「衛靈公」 10章, “顔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88) 『中庸章句』 20章, “哀公 問政, 子曰 …… 凡爲天下國家, 有九經曰, 修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臣也, 體群臣也, 子庶民也, 來百, 工也, 柔遠人也, 懷諸侯也.”

89) 『論語』「衛靈公」 10章, “顔子, 王佐之才, 故問治天下之道, 曰爲邦者, 謙辭.”

90) 『中庸章句』 20章, “哀公, 魯君, 名蔣.”

로 ‘修身’으로부터 ‘懷諸侯’까지 국가를 다스리는 9가지 법칙(九經)을 제시하였다.

부자께서 이른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확고해졌고 40세에 미혹되지 않았으며 50세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세에는 귀로 들으면 이해되었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셨으니 心으로 이 학문을 관통한 것이고, “詩에 흥기하고 仁을 떠나지 않으며 德을 지키고 藝에 노닐며 樂에서 완성한다.”라는 것은 心으로 이 道를 관통한 것이다.⁹¹⁾

위 인용문은 一以貫之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꿰뚫는가?’하는 물음에 『논어』의 경문을 인용하여 대답한 것이다. 그는 ‘一’에 해당하는 것을 堯舜으로부터 내려오는 心法이라고 여겼다. 그는 「위정」의 4장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는데,⁹²⁾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大學의 道’ 즉, 聖인이 되는 학문을 말한다. 또 이 장은 공자는 평생을 성인이 되는 학문에 매진하였음을 밝힌다. 백봉래는 이 점에 착안하여 心法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공부하는 데에 적용하였음을 밝혔다.

또, ‘興於詩’부터는 「泰伯」 8장⁹³⁾과 「述而」 6장⁹⁴⁾을 합쳐 놓은 구절로, 자신의 관점을 서술하기 위해 임의로 경문의 내용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백」 8장에 해당하는 ‘興於詩’·‘成於樂’은 정자가 “천하의 영재는 적지 않지만 다만 道學에는 밝지 않기 때문에 성취하는 바를 얻

91)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夫子所謂十五而志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則心以貫此學也. 興於詩, 依於仁, 據於德, 遊於藝, 成於樂, 則心以貫此道也.”

92) 『論語』 「爲政」 4章,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93) 『論語』 「泰伯」 8章,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94) 『論語』 「述而」 6章,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지 못한다.”라고 해석한 것에 기반하여, 이 전체를 道學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았다. 또 「술이」 6장의 ‘依於仁’ ‘據於德’ ‘遊於藝’ 역시 백봉래는 道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요순으로부터 전수된 心法를 학문과 도학을 모두 꿰뚫는 하나의 이치로 보아 ‘一以貫之’를 설명한 것이다.

백봉래는 ‘이경증경’ 방식을 통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이경통경’의 방법을 통해 단편적 서술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논어』를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吾道一以貫之’의 차서

백봉래는 四書三經 관련 도설을 저술하여 자신의 학문을 구축하였다. 그의 서술은 『시경』과 『서경』의 체제가 易理를 따라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⁹⁵⁾ 四書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경향이 드러난다.

백봉래는 『주역』이 上經과 下經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대하여 공자가 十翼을 지은 것을 전이라 설명하였으며, 이를 四書의 규모를 담당하는 『대학』의 편제와 관련지어 그 차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⁹⁶⁾ 한편 앞서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에서 『논어』 역시 위와 같은 견해를 적용하여 「學而」와 「爲政」이 나머지 18편의 綱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95) 이병찬(2005), 199~201면.

9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大學』, “吁! 前後聖經傳之義也. 義文之易爲經二卷, 而孔子之傳爲十卷. 堯舜之二典爲經, 而孔子之傳序以五十八篇. 文王之二南爲經, 而孔子之傳刪以三百篇, 則堯舜禹湯文武經也. 詩書易傳也. 然則傳者, 釋經之辭也. 詩書無非體易, 而夫子傳之者, 其非釋經之義耶? 至若大學之傳, 此亦釋經之辭也. 何則? 易之經二卷傳十卷, 則大學之經一章傳十章, 抑其非體易而以明詩書之體用耶?”

이러한 주장은 차서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14개의 도설을 서술한 백봉래의 의도를 밝히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백봉래는 각 도의 말미에 도표를 그린 이유와 편차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 전후 도(또는 해당하는 편·장)와 관련지어 설명을 덧붙였는데 아래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논어』 전편은 學이 아님이 없으니 「學而」와 「爲政」은 요체가 된다. 禘의 樂된은 제왕의 大祭를 밝히고 季氏의 僭竊을 억제한 것이다. 關雎章은 기강의 처음과 王化의 끝을 밝혔으니, 一貫章에 이르러서는 ‘吾道의 一貫’을 밝혔다. 또 歎周章은 吾道가 심히 쇠퇴함을 밝힌 것이니 대개 周公의 道가 다시 행해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향당」에 夫子의 形容을 말하였으니, ‘與點’을 감탄한 것은 中和의 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克己復禮는 仁의 用을 본체로 삼는 것이니 爲邦章에 이르러서는 또한 학문과 정사의 極功이 아니겠는가?⁹⁷⁾

위의 인용문은 백봉래가 도설의 대상으로 하는 편·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먼저, 「學而爲政二十篇本原之圖」에서 「學而」를 ‘智’, 「爲政」을 ‘仁’으로 보아 『논어』 20편의 綱領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앞과 실천이 『논어』의 본원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 「禘爲王者之大」는 「述而」 10장⁹⁸⁾에 해당하는 도설로 季氏의 僭竊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禘가 禮를 대표하는 일로 四勿과 연관지어 言·行·動·禴祀·禮樂을 禮와 正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냈

97)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論語全篇無非學, 則學而爲政爲體要也. 禘之爲樂, 以明帝王之大祭, 而抑季氏之僭竊也. 關雎一章, 以明綱紀之首, 王化之端, 則至如一貫, 以明吾道之一貫也. 夢周一章, 以明吾道之甚衰, 則蓋以明周道不復行也. 鄉黨既爲夫子之形容, 則與點之歎, 其不爲中和之氣象耶? 克己復禮, 既爲體仁之用, 則至若爲邦, 抑其非學政之極功耶?”

98) 『論語』「述而」 1章, “子曰, 禘自既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다.99) 또 「關雎爲中和之本」은 「술이」 20장100)을 설명하는 도설로 「關雎」가 夫婦로부터 시작되는 三綱의 시작[綱紀之首]과 王化的 끝(王化之端)을 밝혔다고 설명하였다. 즉, 백봉래는 「箠爲王者之大」를 통해 禘제사에서 공자가 안연에게 전수한 克己復禮에까지 논의를 연장하였으며, 「關雎爲中和之本」에서 吾道の 시작과 끝을 밝힘으로써 ‘吾道一以貫之’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술이」 20장의 ‘關雎之化’와 「雍也」 9장101)의 ‘不改其樂’을 연관지어 ‘一貫의 오묘함[一貫之妙]’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102) 이러한 견해는 ‘一’을 ‘窮神知和之妙’로, ‘貫’을 ‘千籟萬象之串’으로 정의하여 ‘一貫’이 오묘한 속성을 가졌다고 인식한 데에서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3)

또 「歎不復夢見周公之圖」에서는 공자의 道가 심히 쇠퇴하였으며 이로 인해 周公의 道 역시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는데, 백봉래는 이 도설에 대하여 앞에 ‘一以貫之’장과 「泰伯」 사이에 차서한 것은 ‘吾道’의 불행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104) 이는 「夫子道一貫之圖」에서 ‘吾道一貫’을 설명하고 「泰伯至德圖」에서 周公의 지극한 道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105) 그 사이에 「歎不復夢見周公之圖」를 차서함으로

9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禮莫大於分, 分莫大於禘, 則禘者, 此實追遠顧本之義也. …… 非禮勿言, 則言行以禮也. 非禮勿動, 則動以禮也. 非禮勿視, 則禴祀以正也. 非禮勿聽, 則禮樂以正者.”

100) 『論語』 「述而」 1章,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101) 『論語』 「雍也」 9章,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10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編於關雎之次, 不改其樂之前者, 何意也? 曰關雎之化, 箠瓢之樂, 蓋莫非一貫之妙也.”

103)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一者, 窮神知化之妙, 貫者, 千籟萬象之串也. …… 大易所謂 一本爲萬殊, 萬殊爲一本也. 以此推之, 則眞有一貫之妙.”

10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斯文將墜, 此所以編於一貫之後, 泰伯之前者, 蓋以明吾道之不幸也.”

10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此所以編於夢周之次, 而列於鄉黨

써 공자의 道에 불행을 강조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는 「부자도일관지도」 전후의 도설들이 吾道一貫의 妙를 드러냄으로써 吾道の ‘一本萬殊’ 특성을 박힘으로써 ‘吾道一以貫之’를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鄉黨」에서 공자의 언행을 형용하여 그의 道德이 言行에 드러난다는 것을 드러냈고¹⁰⁶⁾ 「與曾點便有堯舜氣象圖」에서 「先進」 25장¹⁰⁷⁾을 해석하면서 曾點의 氣像이 堯舜의 氣像과 일치하며¹⁰⁸⁾ 공자가 추구하는 ‘老者安之’와 ‘小子懷之’가 증점의 ‘冠者五六人’과 ‘童子七八人’에 대응하기 때문에 공자가 증점을 허여한 것을 드러냈다.¹⁰⁹⁾ 또 「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와 「顏淵問爲邦之圖」을 통해 공자의 학문이 안연에게 전수된 것을 밝힘으로써 「與曾點便有堯舜氣象圖」-「克己復禮爲仁體用之圖」-「顏淵問爲邦之圖」의 차서는 곧 ‘一貫之道’임을 드러냈다. 이 3개의 도설은 모두 공자가 인정한 제자에 관한 章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써 공자 道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 도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一本人 공자의 道가 증점과 안회에게 투영되어 萬殊가 된다는 것을 밝힌 차서라고 할 수 있다.

백봉래가 도설의 대상으로 하는 장과 그 차서의 의미는 ‘吾道一以貫之’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吾道一貫의 妙를 드러냄으로써

之前者，蓋以明周之至德也。禮樂德政，無非周之文，則深有味於編次之本義也。”

10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聖門高弟之察於動靜言行之餘, 省於德政禮樂之中者, 無非夫子之粹面盎背, 亦無非夫子之心廣體胖也.”

107) 『論語』「先進」 25章, “點爾, 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10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點之精神, 亦堯舜之精神, 點之氣象, 亦堯舜之氣象也. 以點之狂言不掩行, 雖未侔於堯舜之德業, 便自有堯舜之氣象, 此夫子所以與點也.”

109)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冠者五六人, 吾夫子老者安之之意, 童子七八人, 吾夫子少者懷之之志也.”

吾道の ‘一本萬殊’ 특성을 밝혔고 둘째, 공자의 道가 제자들에게 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됨을 밝혔다. 셋째, 공자로부터 증점·안연 등 제자에게 전해진 공자 道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道傳의 과정을 나열함으로써 다시 萬殊에서 一本으로 귀결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논맹본말론

조선전기 명나라로부터 『四書五經大全』이 유입된 뒤로부터 四書五經에 관한 학문이 형성되었고, 그중 四書가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의 학자들은 모든 학문의 근본을 四書を 비롯한 경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조선의 학자들은 각 경전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중 최상룡은 四書가 四經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를 내세워 四經四書論을 주장하였다. 또 四書의 공부 순서를 주자학설과 달리 『중용』-『대학』-『논어』-『맹자』 순으로 읽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용』이 性命의 깊고 은미한 이치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의리의 본원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초학자의 入德의 문이 되는 『대학』을 읽고, 『논어』를 읽어 操存涵養의 根本을 탐구하고, 그 다음 『맹자』를 읽어 體認擴充의 發越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⁰⁾

백봉래 역시 四書三經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三經과 四書を 體用관계로 보았으며, 三經 안에서는 『주역』이 體가 되고 『시경』과 『서경』이 用이 된다고 언급하였다.¹¹¹⁾ 또 四書에 관해서는 기

110) 최석기(2007), 635면.

존의 주자의 학설을 따르되 『대학』과 『중용』, 『논어』와 『맹자』가 각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아래 인용문에 나타난다.

二典은 『대학』의 조종이 되고, 순임금이 ‘하늘의 명을 삼갈진댄(勅天之命)’이라고 노래한 것이 『시경』의 시초가 되니, 선유들이 이른바 『대학』이 규모가 된다고 한 것이 분명하고, 『중용』이 미묘한 것이 된다고 한 것도 분명하다. 『논어』는 一本이 되고, 『맹자』는 萬殊가 되니 『대학』이 ‘자기명덕을 밝히는 데 달려있다. [在明明德]’라는 것이 그 규모가 아니겠으며, 『논어』의 ‘근본에 힘쓴다(務本)’라는 것이 그 근본이 아니겠는가? 『맹자』의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다[存天理遏人慾]’는 것은 드러난 것이 되고, 『중용』의 ‘天命’은 미묘한 학문이 된다. …… 『중용』·『대학』은 表裏가 되고, 『논어』·『맹자』는 本末이 된다. 지극한 규모는 『대학』이고, 지극히 오묘한 것은 『중용』이다. 공자는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과 같고, 맹자는 꺾어다가 꽃은 꽃과 같다. 그러므로 『중용』·『대학』이 표리가 되고, 『논어』·『맹자』가 본말이 되는 것은 변설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맹백한 듯하다.¹¹²⁾

먼저 그는 『대학』을 規模, 『논어』를 一本으로, 『맹자』를 萬殊로, 『중용』을 微妙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먼저 『대학』을 읽어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으로 『논어』를 읽어 그 근본을 세우고, 다음으로 『맹자』를 읽어서 그 發越을 살피고, 다음으로 『중용』을 읽어서 옛사람의 미묘한 점을

111)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三經爲體, 四書爲用, 則通義者三經, 通理者四書.”

112)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二典, 爲大學之祖宗, 勅天爲三百篇之權輿, 則先儒所謂大學之爲規模明矣. 中庸之爲微妙亦明矣. 論語之爲一本, 孟子之爲萬殊, 則大學之在明德, 其非規模乎? 論語之務本, 其非根本乎? 孟子之存邊, 此爲發越, 中庸之天命, 此爲微妙之學也. …… 若然則庸學爲表裏, 語孟爲本末也. 至規者學, 至妙者庸, 而孔子爲生生之花, 孟子爲剪綵之花, 則庸學之表裡, 語孟之本末, 似或不待辨說而明矣.”

구해야 한다.”라고 한 주자의 견해를 따른 듯하다.¹¹³⁾ 하지만 그는 四書 안에서 『중용』과 『대학』이 表裏가 되고, 『논어』와 『맹자』가 本末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논어』와 『맹자』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아! 『논어』와 『맹자』가 서로 本末이 되고 또 서로 體用이 된다. 그러니 本은 體이고 末은 用이다. 體가 本이 되고 用이 末이 되니 『논어』가 근본이 되는 것은 體이고 『맹자』가 발원이 되는 것은 用이다. 어찌서 그러한가? 堯舜의 道는 공자가 아니면 근본이 확립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공자의 학문은 맹자가 아니었다면 용이 넓어지지 않았을 것이다.¹¹⁴⁾

백봉래는 공자가 堯舜의 道를 이어받음으로써 근본이 확립되었다고 밝힌다. 또 공자의 학문은 맹자에 의해서 널리 적용된 것이라 언급하면서 『논어』와 『맹자』가 본말이 되는 근거를 道統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자가 本을 확립하고 맹자가 넓은 道統에 대한 백봉래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堯舜의 학문은 理이며, 禹湯의 학문은 性이며, 文武의 학문은 心이다. 그러니 道와 命은 늘 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天理를 보존하고 乾性을 본체로 한다. 堯舜禹湯文武의 마음은 또한 天命을 따르고 天道를 행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전한 것은 心學이고 性으로써 따르는 것은 性學이다. 理를 따르고 天을 보존하는 것은 理學의 근원이고, 命을 보존하고 道를 즐기는 것은 道學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 禮가 비

113) 『朱子語類』卷14, 「大學一」, “先讀大學, 以定其規模, 次讀論語, 以立其根本, 次讀孟子, 以觀其發越, 次讀中庸, 以求古人之微妙處.”

114)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孟子』, “吁, 語孟自相本末, 亦相體用, 則本者體也, 末者用也, 體爲本, 用爲末, 則語之爲根本, 體也. 孟之爲發越, 用也, 何則? 堯舜之道非孔子, 則本不立矣, 孔子之學非孟子, 則用不廣矣.”

록 損益이 있지만 학문이 아님이 없으며, 道가 비록 오르내림이 있지만 역시 학문이 아님이 없다. …… 『논어』 전편은 心性의 학문을 밝힌 것이며 또 道理의 학문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 이른바 ‘堯가 이것을 舜에게 전하였고 舜이 이것을 禹에게 전하였고 禹가 이것을 湯에게 전하였고 湯이 이것을 文武·周公·孔子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니 그런 후에 『논어』와 『맹자』가 서로 體用이 되는 것을 알고 또 本末이 서로 관통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¹¹⁵⁾

백봉래는 『논어』 전편은 요순의 理學과 우탕의 性學, 문무의 心學 그리고 道學을 모두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자의 학문은 요순으로 비롯되었음을 말하면서 『논어』와 『맹자』가 本末이 되고 體用이 된다는 견해를 드러낸다.

또한 그는 『논어』와 『맹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맹자』의 四端은 『논어』의 四本の 發越이라는 것이다. 이는 『논어』의 仁義禮智가 『맹자』에서 언급된 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의 근본이 되며, 『맹자』는 仁義禮智의 발월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¹¹⁶⁾ 둘째, 『맹자』의 四用은 모두 『논어』 四德의 발월이라는 것이다. 그는 『논어』의 四德은 ‘본이 확립되자 性이 온전해 짐[本立性全]’·‘본이 확립되자 道가 생겨난다[本立道生]’·‘본이 확립되자 德이 이루어짐[本

115)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論語』, “堯舜之學理也, 禹湯之學性也, 文武之學心也. 道與命, 常爲一心之主, 而存天之理體乾之性, 則堯舜禹湯文武之爲道, 無非存天之理, 體乾之性也. 堯舜禹湯文武之爲心, 亦無非順天之命, 行天之道也. 以心相傳者, 心學也. 以性相率者, 性學也. 順理存天, 爲理學之原, 存命樂道, 爲道學之本, 則禮雖損益, 莫非學也, 道雖升降, 亦莫非學. …… 全篇所以明心性之學, 亦以明道理之學, 則此所謂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孔子也. 然後知語孟之自相體用, 而本末之亦相貫通也.”

116)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孟子』, “語以仁爲惻隱之本, 孟以惻隱爲仁之端者, 彼體而此用也. 語以禮爲辭讓之本, 孟以辭讓爲禮之端者, 彼體而此用也. 語以義爲羞惡之本, 孟以羞惡爲義之端者, 彼體而此用也. 語以知爲是非之本, 孟以是非爲知之端者, 彼體而此用也. 然則孟子之四端, 其非論語四本之發越耶?”

立德成]·‘본이 서자 命이 보존됨[本立存命]’의 4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4가지의 發越이 『맹자』에 각각 ‘선한 마음이 감발됨[感發善心]’·‘治亂을 밝힘[明治亂]’·‘왕도를 행하고 방백을 내침[王行伯黜]’·‘안일한 뜻을 징계함[懲創逸志]’과 같은 用들로 발현된다는 것이다.¹¹⁷⁾ 셋째, 『맹자』에서는 三綱과 五倫을 밝혔는데, 이 역시 모두 『논어』에서 비롯된 이치의 발월이라는 것이다.¹¹⁸⁾

백봉래는 『논어』와 『맹자』가 根源과 發越이라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자의 道統을 맹자가 이어받았다는 점, 『논어』의 핵심내용인 四德과 四本이 『맹자』에서 四端과 四用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로 나타난다는 것을 들어 『論語』는 一本 『孟子』는 萬殊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4. 결론

본고는 『논어』를 도설로 해석한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도설은 난해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방법으로 조선시대 경학연구 방법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도설은 각 경전과 학자에 따라 그 형태와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도설을 채택하여 자신의 경학론을 전개해 나간 백봉래의 『四書通理-論語』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117)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孟子』, “彼以本立性全, 此以感發善心者, 以體用言也. 彼以本立德成, 此以明治亂者, 以體用言也. 彼以本立道生, 此以行王黜伯者, 以體用言也. 彼以本立命存, 此以懲創逸志者, 亦以體用言也. 然則孟子之四用, 抑其非論語四德之發越耶?”

118) 白鳳來, 〈九龍齋先生文集〉卷13, 『四書通理-孟子』, “孟子之明三綱, 無非發越也. 孟子之晰五倫, 亦無非發越也.”

『논어』 도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백봉래의 경학은 형태 면으로 보나 내용 면으로 보나 눈에 띄는 점들이 나타난다. 첫째, 도설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저술을 도설 형태로 서술하면서 자신의 경학론을 전달하기 쉽도록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각 도표마다 부가적인 설명을 붙여 그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둘째, 서술방식에 있어서 다른 경전의 경문을 인용하는 以經證經·以經通經의 방식을 통해 논어에 관한 면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셋째, 四書三經을 유기적으로 연관짓는 경학관을 전제로, 『논어』와 『맹자』를 本末과 體用관계로 보아 주자가 『논어』-根本 『맹자』-發越이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학설을 폈다는 것이다.

그가 살아간 18세기는 『논어』연구에 있어 양명학과, 퇴계학과, 우암학과, 실학과 등에서 여러 학파에서 다채로운 양상이 나타났다.¹¹⁹⁾ 이와 달리 백봉래는 재야의 학자로서 학계에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였을 뿐더러 특별한 사승관계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학설은 주학은 근간으로 하였지만, 당시 어느 학파와도 구별되는 학설을 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한국 도설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논어』 도설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백봉래가 도설이라는 형식으로 『논어』를 해석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준으로 채택한 전도·분절·장별·핵심어별 유형의 분류는 『중용』도설 연구를 위한 기준에서 참고한 것이므로 『논어』도설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연구대상으로 한 장현광, 김황, 박세채, 백봉래 등의 『논어』도설

119) 이영호(2019), 『동아시아의 논어학』, 『대동문화연구총서』 권29,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261.

이외에 龍崖 申應泰(1643-1728) 등 확인하지 못한 『논어』 관련 도설이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때문에 본고가 조선시대 『논어』 도설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어』 도설을 총망라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한 『논어』 도설 이외 새로운 『논어』 도설을 밝혀내고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 본고의 전도·분절·편장별·핵심어별 유형 분류를 넘어서서 『논어』 도설을 저술한 목적과 도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분석을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論語』

『孟子』

『大學章句』

『中庸章句』

『周易』

『周易正義』

『論語集注』

『朱子語類』

『性理大全書』

金 梲, 『重齋先生文集』, 重齋先生文集刊行會, 1998.

金 侁, 『敬窩集』, 『韓國文集叢刊』 卷100, 서울: 民族文化推進黨, 1992.

朴世采, 『韓國文集叢刊』 卷141,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民族文化推進黨, 1995.

白鳳來, 『韓國經學資料集成』 卷23, 『四書通理』,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0.

沈就濟, 『韓國經學資料集成』 卷30, 『謙窩集』,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2.

張顯光, 『易學圖說』, 서울: 韓美文化社, 1998.
 曹植, 『學記類編』, 경상대학교 문천각 소장본.
 崔象龍, 『鳳村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연구논저〉

- 이영호(2019), 『동아시아의 논어학』, 대동문화연구총서 권2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복심著; 전병욱譯(2018), 『四書章圖: 彙括總要』 권2, 세창출판사.
- 최석기(1998), 『한국경학가사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최석기·강현진(2012),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 최석기(2013), 『조선시대 중용도설』, 보고서.
- 한국주역대전편찬실(2017), 『한국주역대전』 권5~6, 학교방.
- 김채리(2016), 「碩齋 尹行恉의 『論語隨筆』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창호(2008), 「九龍齋 白鳳來의 『四書通理』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구룡재 백봉래의 經學 一考 -『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38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9~99면.
- 박학래(2009), 「『海東文獻總錄』과 敬窩 金佺」, 『민족문화연구』 제5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27~249면.
- 서근식(2009), 「『논어』의 '仁'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36호, 동양고전학회, 31~56면.
- 윤기륜(2015), 「崔象龍의 『論語辨疑』 譯註」,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찬(2005), 「白鳳來 詩經論의 編輯批評의 性格 研究」, 『어문연구』 제48호, 어문연구학회, 195~217면.
- _____ (2008), 「백봉래의 書經論 연구 - 編輯批評의 性格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6호, 어문학회, 169~190면.
- 이영호(1999), 「17世紀 朝鮮 學者들의 『大學』 解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인(2014), 「鳳村 崔象龍의 『孟子』 해석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연(2016),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바라본 『論語』의 信 관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석(2016), 「九龍齋 白鳳來의 《書經》 「虞書」 六圖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석기(1999), 「南冥思想의 本質과 特色」,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27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43~83면.
- _____ (2005), 「『한국경학자료집성』의 특징과 그 연구방향, 『한국경학자료집성』 소개 『대학』 해석의 특징과 그 연구 방향」, 『대동문화연구』 제49호, 대동문화연구, 39~88면.
- _____ (2007), 「鳳村 崔象龍의 學問性向과 經學論」, 『한문학보』 17호, 우리한문학회, 617~647면.
- _____ (2018), 「조선시대 『中庸』 해석의 양상과 특징 -圖說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60호, 경남문화연구원, 356~392면.

A Study on Graphical Illustration about the Analects of Confucius of Guryongjae Baekbongrae

Lee, A Young *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onstruction of Analects by Baek Bong-rae (1717-1799) of Gurongjae. Baek Bong-rae, a scholar of the 18th century, wanted to reveal the moral significance left by Sung-hyun from his own perspective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and academic background.

Th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took the form of interpreting the scriptures into pictures to understand the overall gist and logic structure of each scripture. They wanted to analyze the details of each script carefully and put the concepts related to the core themes in a single chart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concepts.

Baek Bong-rae's 『Noneotongri』 has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both form and content. In terms of form, the main characteristic is that the author of Analect, which has an epigraphic form, is to understand consistent logic and system through a method of writing. Through 『Analects of Confucius』 schematic, he analyzed 『Analects of Confucius』 in various ways by grasping the main points and logic structures of each chapter and by analyzing 『Analects of Confucius』 in various ways.

In terms of content, it is based on the theory of self-reliance, but it is characterized by leading more specific discussions. In interpreting 『Analects of Confucius』, the depth of interpretation was added in relation to various scriptural phrases through the method of 『Analects of Confucius』 such as

* Master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 ayoung3431@naver.com

yijing zhengjing 以經證經 (interpreting the original text based on the classics), yijing tongjing 以經通經 (interpreting the classics through other classics), the entire 『Analects of Confucius』 were revealed in 14 diagrams. Also expanded the discussion on 『Noneo』 by organically linking 『Analects of Confucius』 and 『Mencius』 to form a true language relationship.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s through schematics is a rare example in East Asia, which is a major feature of the Joseon Dynasty's scriptures. The Joseon's scholars charted Analects despite the sporadic form of Analects. In particular, Baek Bong-rae wrote 14 schematics, including all types of 『Analects of Confucius』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is true that his writings were not objectively evaluated by scholars of his time as a result of self-study. However, he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as an attempt to ultimately view the scriptures of oil pric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rough the illustrations of the scriptures.

Key Words

Guryongjae Baekbongrae(九龍齋 白鳳來), four books(四書), Noneodo(論語圖), Noneotongri(論語通理), Noneodoseol(論語圖說)

논문접수일: 2020. 12. 25, 심사완료일: 2021. 1. 20, 게재확정일: 2021. 2. 3

